

【논문】

글라우콘의 도전

임성진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윤리학, 정치철학

【주요어】 글라우콘, 정의, 좋은 것, 정의의 기원, 기계스의 반지, 삶의 선택

【요약문】 『국가』 2권에서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발전시켜 세 차례 소크라테스에게 도전하는데, 정의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정의는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자들의 약정에서 기원하는데, 불의를 행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최선과 불의를 당하고서도 보복을 할 수 없는 최악 사이에 있다. 2) 모든 사람은 탐욕 때문에 불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처벌 때문에 마지못해 정의를 행한다. 3) 가장 불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평판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러나 글라우콘의 도전에는 문제가 있다. 1) 그가 말하는 정의의 기원은 민주정 일부를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2) 그는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고 전제할 뿐 이를 입증하지 않으며, 처벌 회피에 논의를 집중하면서 정의로운 질서의 유지를 간과하고,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라우콘이 말하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 또는 가장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자연 상태보다는 정의로운 질서 하에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우콘의 도전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제시하되 정의를 행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 들어가며

‘정의(正義)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다. 우리는 마땅히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무엇이나에 따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물음이 왜 중요한지는 플라톤의 『국가』 1권에서 잘 드러난다. 1권의 등장인물인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득’(338c)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의 정의 규정은 소크라테스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크게 위협한다. 트라시마코스 따르면, 정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불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불의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리고 더 행복하기에, 불의한 삶이 권장된다. 그런데 강자(통치자)만이 불의하게 살 수 있을 뿐, 약자(피치자)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약자도 이득을 위해 불의를 행할 수는 있지만, 발각되면 처벌받아서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못해 정의를 행한다. 트라시마코스의 말이 옳다면,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정의를 행하지는 않으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마지못해 정의를 행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만 있으면 정의보다는 불의를 지향하며 살 것이고 강자가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삶은 바람직할까? 이런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의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1권 끝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정의가 불의보다 더 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에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를 제대로 논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2권에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린

다. 그는 불의보다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의를 행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알려달라고 소크라테스에게 요청한다. 비록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트라시마코스와의 입장이 다르지만, 정의가 불의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고, 정의로운 삶이 불의한 삶보다 행복하지는 않다는데 동의한다. 그리하여 그는 트라시마코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자기 입장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켜서 소크라테스가 이를 논박하기 어렵게 만든다.

글라우콘은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밝히고자 세 차례 소크라테스에게 도전한다. 첫 번째 도전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기원을 밝히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어서 마지못해 정의를 행함을 주장하며, 세 번째 도전에서는 불의한 사람의 삶이 정의로운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못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주장한다.(358c) 그는 세 차례의 도전을 통해, 트라시마코스와의 대충이 생각하듯 정의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밝혀서 소크라테스가 정의는 그 자체 때문에도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글라우콘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정의는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의를 행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의 도전을 잘못된 것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글라우콘은 상당히 정교한 논리를 구사하면서 세 차례 소크라테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기에, 그의 도전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도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 도전마다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것과 다른 정의의 기원을 말하는데, 이것이 모든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정의의 기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이 타당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도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의 도전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2권 이후의 논의에서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의 도전에 대응하여 그의 도전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극복한다. 소

크라테스의 주장을 통해서 글라우콘의 도전에 내포된 문제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보기 전에 글라우콘의 도전이 그 자체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의 도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의 도전은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으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정의가 결과 때문뿐만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라우콘의 도전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그 전에 먼저 글라우콘의 논의가 정말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겠다.

II.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발전시킨 글라우콘 논의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에게 “선생님께서서는 불의한 것보다는 정의로운 것이 모든 점(panti tropōi)에서 더 좋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하신 듯이 ‘보이기(dokein)’를 바라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설득하기를 바라나요?”(357a~b)라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후자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글라우콘은 좋은 것을 세 가지, 즉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 그 자체 때문에도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으로 분류한 후에,¹⁾ 정의가 이 중에 어느 것인지를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다.(357b~d)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도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대중은 정의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는 그 자체로는 수고로운 것이어서 기피해야지만 보수와 평판을 통한 명성 때문에 행해야 한다.(358a) 글라우콘은 대중의 생각에 동의하기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린다고 말한다. 왜

1) 좋은 것의 분류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Kirwon (1965); White (1984); Irwin (2000); Heinaman (2002); Shields (2006); Reeve (2008) 참조.

나하면 그는 불의한 사람의 삶이 정의로운 사람의 삶보다 훨씬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트라시마코스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한테서 귀가 멍하도록 이런 말을 듣게 되어 당혹스러움에 빠졌기 때문이다.(358b~d) 그는 세 차례 소크라테스에게 도전한다.

과연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리는가? 트라시마코스 와 글라우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²⁾ 첫째,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 정의를 만든 주체는 지배자, 강자지만,(338d~e) 글라우콘의 경우에, 정의를 만든 주체는 불의를 행할 수도 없고 불의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도 없는 약자이다.(358e~359a) 둘째,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 약자는 법 제정에 참여하지 않고, 강자가 법을 제정하지만,(338e) 글라우콘의 경우에, 약자는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당하지 말자는 약정을 맺고서 법을 제정한다.(358e~359b) 셋째,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며, 약자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지만,(343c) 글라우콘의 경우에, 정의는 불의를 행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최선과 불의를 당하고서도 보복할 수 없는 최악 사이에 있는 차선이고,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다.(359a~b) 게다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글라우콘의 방법을 적용하면 트라시마코스가 의도한 결과가 안 나오지만, 트라시마코스의 방법을 적용하면 글라우콘이 의도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두 사람의 주장은 방법과 결과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³⁾

트라시마코스 와 글라우콘 사이에는 이런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정의로운 삶을 어떤 의미에서 차선으로 여기기에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린다.⁴⁾ 트라시마코스는 세 가지 종류의 삶, 즉 불의를 행하되 처벌받지 않는 삶, 정의로운 삶, 불의를 행하지만 처벌받는 삶이 있다고 여긴다. 불의를 행하되 처벌받지 않는 삶이 최선이고, 불의를 행하지만 처벌받는 삶이 최악이며, 정의로운

2) Weiss (2007), 100.

3) 글라우콘과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의 방법과 결과의 차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Santas (2010), 42~44 참조.

4) Williams (1997), 58.

삶은 차선이다. 글라우콘도 정의로운 삶을 차선으로 여긴다. 추가적으로 둘의 견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같다.⁵⁾ 첫째, 글라우콘은 법의 지시가 정의롭다(359a)고 말해서, 정의(正義)는 ‘법에 대한 복종’(339c)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명목적(nominal) 정의(定義)를 수용한다. 둘째, 글라우콘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약정을 통해 새로운 강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득’(338c)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실질적(real) 정의를 수용한다. 셋째, 글라우콘이 말하는 ‘참된 사내’(359b)와 ‘가장 불의한 사람’(360e)의 원형은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완벽하게 불의한 참주’(344a)이다. 게다가 트라시마코스와 글라우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권력, 부, 쾌락 등으로 여기고, 처벌을 피하면 불의가 정의보다 불의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측면에서도 둘의 견해는 같다.⁶⁾ 이런 이유에서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린다.

글라우콘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린다고 해서 둘의 주장이 같지는 않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주장한다.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제기하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한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좋은 것이며 이득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맞서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발전시킨다. 그리하여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발전시킨 글라우콘의 주장은 더욱 논박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와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 모두 잘못된 것이며, 정의가 불의보다는 더 많은 이득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발전시킨 글라우콘의 주장을 논박할 필요가 있다. 과연 글라우콘의 주장은 옳은가?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의 세 차례 도전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5) Reeve (2008), 84~85.

6) Santas (2010), 44.

III. 글라우콘의 첫 번째 도전: 정의의 기원

글라우콘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정의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첫 번째 도전을 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본래 불의를 행하는 것(adikein)은 좋은 것이지만, 불의를 당하는 것(adikeisthai)은 나쁜 것이죠. 불의를 당해서 생기는 나쁨이 불의를 행해서 생기는 좋음보다 훨씬 커서, 사람들이 서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며, 그 둘 다를 겪게 될 때, 불의를 당하는 것을 피하되 불의를 행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당하지 않도록 약정을 맺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연유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정과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법의 지시를 합법적이며 정의롭다고 이름 붙이죠. 바로 이것이 정의의 기원이자 본질이죠. 불의를 행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최선과 불의를 당하고서도 보복을 할 수 없는 최악 사이에 정의가 있죠. 정의가 이 양자 사이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정의를 아끼는데, 정의가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으로 인해 존중받는 것이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참된 사내는 불의를 행하지도 말고 불의를 당하지도 말자는 약정을 어느 누구와도 맺지는 않을 테죠. 그가 약정을 맺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이죠.”(358e~359b)

사람들은 약정을 맺어 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자연 상태에 있었는데,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불의는 존재하는가? 만약 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정의가 존재한다면, 불의도 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존재한다. 법이 정의로운 행위인지 여부를 가려주기 때문이다. 불의한 행위라고 판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과 ‘불의를 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해를 가하는 것’을, ‘불의를 당하는 것’은 ‘해를 입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면, ‘불의를 행하는 것’과 ‘불의를 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불러일으키는 오해는 해소될 것이다.⁷⁾ 정의와 불의가 있기 전에도 해를 가하는 행위와 해

를 입는 행위는 존재한다. 해를 가하는 사람은 이득을 얻지만, 해를 입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사람들은 해를 입기보다는 해를 가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원하는 대로 행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위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원하는 대로 행위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는 해를 입지 않고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 해를 가하고 해를 입는 사람, 해를 가하지는 못하고 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⁸⁾ 그런데 해를 가하고 해를 입는 사람은 해를 가할 때 얻는 이득과 해를 입을 때 당하는 손해를 비교하여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경우에 해를 더 이상 입지 않을 조치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해를 입지 않고 해를 가하는 사람만이 이득을 보고, 해를 가하고 해를 입는 사람과 해를 가하지는 못하고 해를 입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강자’라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힘과 재능, 부 등을 우월하게 지닌 사람은 이것들을 갖고 이득을 얻어서 강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약자들은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정을 맺게 된다.

약자들이 자연 상태에서 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⁹⁾ 첫째, 사람들은 욕구 충족을 위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싶어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자원을 얻는 양과 잃는 양이 동일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심지어는 한정된 자원을 얻는 양보다 잃는 양이 더 많은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이 벌어질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거나 원하거나 좋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여 원하는 것을 얻고 다른 사람의 보복은 피하려고 한다. 셋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평등해서, 아무리 강자라 해도 강제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영향 하에 둘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 넷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rational)인 존재여서, 자연 상태에서 해를 가하고 해를 입는 경험

7) Cross & Woozely (1964), 71; Shields (2006), 82, 각주 14; Santas (2010), 38.

8) Shields (2006), 70~71.

9) Santas (2010), 38~39.

을 통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네 가지 조건이 충족 되면, 약자들은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정을 맺게 된다.

약자들은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정을 맺고서 법을 제정 하는데, 법의 지시를 합법적이고 정의롭다고 이름 붙인다.(359a)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는 행위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해를 가하는 행위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불의한 행위이다. 법은 불의하게 행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불의를 행하는 강자조차도 처벌할 수 있다. 강자는 처벌 회피를 위해 점점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된다. 법이 제정된 후에 강자가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약자는 손해를 안 보게 된다. 약자에게는 자연 상태에서 손해를 보며 사는 것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질서 하에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약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법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다.¹⁰⁾

약자들이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정을 맺을 때, 강자는 약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약정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해서 더 이상 이득을 못 보기 때문이다. 개인차원에서 강자는 약자보다 더 강하지만, 약정을 통해 약자 집단이 형성되면 약자가 강자보다 더 강해진다. 집단을 형성한 약자는 불의를 행하는 강자를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강자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면 위협을 무시하지만, 그럴 수 없으면 처벌 회피를 위해 약자가 제정한 법을 마지못해 지킬 것이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강자는 약자가 맺은 약정에 마지못해 참여한다. 불의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거나 항상 정의로운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면, 불의한 행위를 한 사람은 발각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불의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거나 항상 정의로운 행위로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강자는 약자가 맺은 약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약정은 두 번에 걸쳐 맺어지는데,¹¹⁾ 처음에는 약자들 사이에 맺어지고, 그 다음에는 강자들이 참여해서 맺어진다.¹²⁾

10) Santas (2010), 39.

11) Santas (2010), 41.

12) 산타스는 글라우콘 논변을 사회계약론 논변으로 보며, 두 번에 걸친 약정

강자든 약자든 법의 영향 하에 있다.¹³⁾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이 무엇인지가 밝혀졌다.¹⁴⁾ 그는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주장하고자 정의의 기원을 말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첫 번째 도전을 했다. 정의는 불의가 가져다주는 만큼의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기에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는 불의를 당할 때 입는 손해보다는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기에 결과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글라우콘은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정의가 결과 때문에도 그 자체 때문에도 좋은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충돌한다. 두 사람

체결로 모두가 계약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리브는 글라우콘의 논변은 사회계약론 논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약자들 사이에서만 약정이 맺어질 뿐, 강자는 약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글라우콘 논변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며, 힘(power)이 약자들의 약정이 갖는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정의의 기원은 약자들이 자연적인 힘을 더 많이 갖는 데서 비롯하기 때문에, 정의는 관습적인(conventional)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natural)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법과 같은 관습(convention)들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적 힘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Reeve (2008), 80~81.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약정 체결로 모두가 계약에 참여한다는 산타스의 주장은 타당하기에, 글라우콘 논변은 사회계약론 논변이다. 그리고 글라우콘 논변에 따르면, 정의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것이다. 약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강자들보다 더 강해질지언정 약정을 맺어서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13) Weiss (2007), 101.

14) 리브는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은 절대적인 정의의 기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약정을 맺고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불의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당해서 약정을 맺고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약자들이 약정을 맺기 전에도 법은 존재했고, 약자들의 약정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Reeve (2008), 79~80. 그러나 약정을 맺기 이전에도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정을 맺기 이전에도 법이 존재한다는 리브의 주장과는 달리, 약정을 맺기 이전에 있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해를 가하는 것이다. 글라우콘의 말에서 약자들이 약정을 맺기 이전에도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는 없다. 리브의 주장은 글라우콘의 말에 근거해 있지 않으며, 결국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은 절대적인 정의의 기원이다.

의 주장은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글라우콘이 주장하듯 정의가 약자들의 약정에서 나온다면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가 약자들의 약정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글라우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은 옳은가? 정의는 약자들이 약정을 맺을 때에만 발생하는가? 글라우콘이 주장하듯 정의는 약자들의 약정에서 나올 수 있다. 약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정체로는 민주정이 있다. 그런데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는 민주정 이외의 정체에서는 생길 수 없으며, 모든 민주정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약자들이 약정을 맺고 권력을 얻어서 민주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테네 민주정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존재한 민주정은 글라우콘이 말한 대로 생기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정은 약자인 민중의 힘이 커졌을 때, 기존에 있던 왕정이나 참주정이 바뀌어서 생겼다. 이러한 정의의 기원은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과 분명히 다르다. 심지어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의 기원이 글라우콘의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각 정체의 지배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서는 이것을 정의로 공포한다고 말한다.(338e) 각 정체의 지배자, 즉 강자가 정의를 만든다.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는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보다 생겨날 가능성이 더 높다. 다수의 약자들이 정체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여러 과정이 요구된다. 먼저 약자들 각자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정을 맺을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약자들을 만나서 이런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며, 더 나아가 약정을 맺은 약자들의 집단이 강자들을 제압할 힘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정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정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강자들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이를 정의라고 공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강자들은 소수인데다 자기 이익을 실현할 힘을 갖고 있다.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는 모든 정체에서 생

길 수 있다. 결국 그가 말하는 정의의 기원은 글라우콘이 말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의 기원 외에 또 다른 정의의 기원도 가능하다.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은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¹⁵⁾ 결국 이런 점에서 글라우콘의 첫 번째 도전에는 문제가 있다.

IV. 글라우콘의 두 번째 도전: 기게스의 반지

글라우콘은 정의의 기원이 서로 불의를 행하지 말자는 약정에 있음을 밝혀서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주장하고자 소크라테스에게 첫 번째 도전을 했다. 그는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자 두 차례 도전을 더 한다. 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의가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어서 정의를 마지못해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두 번째 도전을 한다. 정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서, 욕구가 그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관찰하면, 정의로운 사람조차 탐욕(pleonexia) 때문에 불의한 사람과 같은 곳으로 간다. 모든 본성은 탐욕을 좋은 것으로서 추구하지만, 법에 의해 평등을 존중하도록 강제당한다.(359b~c) 정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본성상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하지만, 법 때문에 제지당한다. 법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여 그에게 더 큰 손해를 준다. 보통 사람들은 처벌로 인한 손해 때문에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처벌을 안 받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불의한 행위를 과연 안 할 것인가? 글라우콘은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불의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게스는 리디아의 통치자에게 고용된 목자인데, 송장의 손가락에

15) 실즈는 플라톤이 정의의 기원은 계약론적인 합의에 있지 않으며, 정의는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 덕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Shields (2006), 72.

서 반지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손가락에 끼고 목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반지를 손 안쪽으로 돌리면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왕비와 간통을 하고 왕을 살해하고서는 왕국을 장악했다.(359d~360b) 글라우콘은 정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기게스의 반지를 끼면 정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게스의 반지를 낀 사람은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원하는 행위를 다 하면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위해 불의를 행할 것이다. 불의가 정의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면, 불의는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정의는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의는 처벌이라는 손해를 결과로 가져올 수 있기에, 정의의 결과가 불의의 결과보다 더 좋을 수는 있다. 이런 이유에서 글라우콘은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기게스의 반지는 현실 세계에는 없고, 투명인간처럼 자기 모습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이다.¹⁶⁾ 글라우콘이 기게스의 반지를 가지고서 사고 실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인간이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동기를 명백히 보여주려고 사고 실험을 한다. 인간이 무한히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불의를 행해야 하는데, 두 가지, 즉 하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는 것 중 하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¹⁷⁾ 기게스의 반지를 끼면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면, 기게스의 반지를 낀 사람은 항상 불의를 행한다.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동기는 명백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행위에는 두 가지 동기, 즉 불의가 불의이기 때문에 불의를

16) Shields (2006), 73; Santas (2010), 47.

17) Weiss (2007), 101.

피하는 동기와 불의한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불의를 피하는 동기가 섞여있다.¹⁸⁾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두 번째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첫 번째 동기로만으로는 정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이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동기는 처벌 회피이다.

글라우콘은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의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글라우콘의 주장은 정의가 결과 때문에도 그 자체 때문에도 좋은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충돌한다. 여기에서도 두 사람의 주장은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글라우콘이 주장하듯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면, 정의는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의는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하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글라우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글라우콘의 두 번째 도전은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처벌 회피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로 보여주는데, 법이 존재해야 처벌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이 잘 지켜지면 정의로운 질서(just order)는 유지된다. 그런데 글라우콘은 기게스의 반지가 가져다주는 처벌 회피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의로운 질서를 논의에서 놓친다.¹⁹⁾ 다수의 약자들에게는 자연 상태에서 강자들에 의해 해를 입는 것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정의로운 질서 하에서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에, 정의로운 질서의 유지는 좋지만 정의로운 질서의 파괴는 나쁘다. 물론 불의한 행위가 정의로운 질서를 무조건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불의한 행위를 한 사람을 적발해서 처벌할 경우, 정의로운 질서가 파괴될 만큼 불의한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 정의로운 질서는 유지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질서가 파괴될 만큼 불의한 행위가 행해질 경우에는 법이 존재하기 이전의

18) Shields (2006), 73.

19) Irwin (2000), 653.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되돌아간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의 좋은 결과(정의로운 질서의 유지)는 사라지고, 불의의 나쁜 결과(정의로운 질서의 파괴)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게스의 반지가 정의로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라우콘의 두 번째 도전은 실패할 수 있다. 기게스의 반지를 낀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도 불의한 행위를 할 것이고,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불의한 행위를 할 것이다. 그는 자연 상태든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불의한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정의로운 질서의 유지에는 관심이 없다.²⁰⁾ 그는 무한한 욕구 충족을 위해 온갖 불의를 행할 것이며, 결국 언젠가 정의로운 질서는 파괴될 것이다. 정의로운 질서가 파괴되면,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며 법은 무기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정의로운 질서가 유지될 경우에만, 글라우콘의 두 번째 도전은 의미가 있다. 글라우콘은 기게스의 반지를 통해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정의로운 질서의 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두 번째 도전은 실패할 수 있다. 더욱이 정의로운 질서가 파괴되면 자연 상태에서 입었던 해를 다시 입게 되리라는 것을 의식하여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면, 기게스의 반지를 끼고 있어도 불의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²¹⁾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를 행하는 사람은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하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는 글라우콘의 두 번째

20) 어윈은 정의로운 질서가 파괴될 때, 불의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게스의 반지를 거부하고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지켜야 하는 좋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Irwin (1977), 186. 그러나 리브에 따르면, 어윈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기게스의 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처벌받지 않은 채 불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는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는 강자가 되며, 해를 가하는 행위를 삼갈 필요가 없다. Reeve (1988), 283, 각주 25.

21) Williams (1997), 59.

도전은 실패하게 된다.

글라우콘은 사람들이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인 정의를 마지못해 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자체로 좋지는 않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²²⁾ 예컨대 이빨을 치료하는 것은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지는 않지만, 아픔을 치료해서 건강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빨이 아픈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과에 간다. 이빨을 치료하는 것처럼 정의도 결과 때문에 좋은 것으로서, 사람들이 정의를 자발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가? 글라우콘의 말이 옳다면, 적어도 약자들은 정의를 자발적으로 행한다. 왜냐하면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은 자발적으로 약정을 맺어 법을 제정하고서는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면, 자연 상태에서 당했던 손해를 더 이상 안 보게 된다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글라우콘은 정의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정의가 마지못해 행해진다고 주장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만약 이빨을 아프게 치료하는 것 대신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면, 어느 누구도 이빨을 아프게 치료하는 것을 택하지 않듯이, 정의 대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정의를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²³⁾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정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고,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다.

글라우콘이 주장하듯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²⁴⁾ 첫째, 우리가 행위하는 참된 동기는 욕구 충족의 양을 늘리고자 계산하는데 있다. 둘째, 정의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항상 이기적으로 행위한다는 심리적 이기주의를 가정하고, 두 번째 전제는 정의를 그 자체 때문에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이기적으로 행위하는가?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고 밝혀진다면, 인간은 항상 이기적으로 행위한다. 그런데 글라우콘은

22) Shields (2006), 75~76.

23) Shields (2006), 76.

24) Shields (2006), 76.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밝히지는 않았다. 첫 번째 전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글라우콘은 정의의 기원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지만, 이는 그의 주장에 불과할 뿐, 정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의가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인지를 단언할 수 없기에, 정의를 그 자체 때문에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결국 두 가지 전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글라우콘이 주장하듯 정의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점에서 글라우콘의 두 번째 도전에는 문제가 있다.

V. 글라우콘의 세 번째 도전: 삶의 선택

글라우콘은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밝히기 위해 소크라테스에게 두 차례 도전했는데, 가장 정의로운 사람과 가장 불의한 사람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한 번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밝히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하는데, 불의한 사람의 삶이 정의로운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크라테스에게 세 번째 도전을 한다. 그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과 가장 불의한 사람을 대비한 다음, 둘 중 누가 더 행복한지를 판정하자고 제안한다. 최고의 불의는 실제로는 정의롭지 않지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dokein)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의한 사람은 가장 큰 불의들을 행하고서도 정의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평판(doxa)을 갖는다. 반면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평판을 갖는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의 삶과 가장 불의한 사람의 삶은 가장 극단적으로 비교되는데,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의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360e~362c)

글라우콘은 가장 정의로운 사람의 삶과 가장 불의한 사람의 삶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정의로운 사람과 가장 불의한 사람에게서 각각 정의롭게 보임과 불의하게 보임을 제거한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가장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는 정의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에게 불의의 평판(doxa)을 주고, 가장 불의한 사람에게 정의의 평판을 준다. 정의의 평판은 명예와 선물(좋은 결과)을 가져다주지만, 불의의 평판은 불명예와 처벌(나쁜 결과)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불의는 처벌 받지 않는 한, 정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부터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데 더하여 불의의 평판으로부터 나쁜 결과를 가져서 가장 나쁜 결과를 갖게 되는 반면에, 가장 불의한 사람은 불의로부터 좋은 결과를 갖는데 더하여 정의의 평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가져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의 삶과 가장 불의한 사람의 삶을 비교할 경우, 가장 불의한 사람의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정의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글라우콘의 주장은 옳은가? 글라우콘의 말에 따르면, 가장 불의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서 국가를 통치하고, 원하는 가문과 혼인을 하며, 원하는 사람과 자녀들을 혼인시키고, 교제하며, 거래한다.(362b) 게다가 그는 불의를 행하여 이득을 취하고 모든 면에서 덕을 본다.(362b) 그는 정의의 평판이 가져다주는 좋은 결과와 불의가 가져다주는 좋은 결과를 모두 가지기에 가장 행복하다. 반면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으로 보여서 태형을 당하고, 사지를 비틀리는 고문과 결박, 두 눈의 불 지짐, 책형을 당한다.(361e~362a) 그는 불의의 평판이 가져다주는 나쁜 결과를 지니기에 가장 불행하다. 글라우콘은 가장 정의로운 사람의 정의가 그의 행복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불의를 행할 때 얻는 이득을 정의는 결코 가져오지 않기에, 정의는 불의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으며, 따라서 정의는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의의 평판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고, 불의의 평판은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로운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명예와 선물을 주고, 불의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불명예를 주고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행위자 이외의 사람은 행위자의 행위를 항상 관찰할 수는 없기에, 행위자만 자기가 정의롭게 행위했는지 여부를 안다. 불의한 행위를 한 사람은 불의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한,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정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정의로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한, 불의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행위자의 행위를 정의로운 행위로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위자가 좋은 결과를 갖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정의의 평판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며, 그것은 결국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다.

글라우콘의 세 번째 도전에서 정의가 직접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같지는 않다. 정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나쁜 결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정의가 직접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정의의 평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런 이유에서 글라우콘은 세 번째 도전에서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 그런데 그는 세 번째 도전에서 정의와 불의 대신에 정의의 평판과 불의의 평판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는 정의가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정의의 평판과 불의의 평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한다. 그런데 불의의 좋은 결과가 정의의 평판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은 불의의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없다. 그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의의 평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가 세 번째 도전에서 정의의 평판과 불의의 평판을 강조하면, 세 번째 도전에서 밝히려고 한 것이 정의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놓치게 된다. 차라리 정의

의 평판이 아니라 정의가 직접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불의가 직접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기에 정의가 불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글라우콘이 강조했다면, 정의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히 드러났을 것이다.

글라우콘은 가장 불의한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옳다면,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사람들 대부분은 글라우콘이 말하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 또는 가장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가장 불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지적 능력과 엄청난 대담함, 불의를 대규모로 저지를 수 있는 큰 행운을 타고나야 하는데,²⁵⁾ 이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는, 그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의관을 갖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의 성격(character)을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거나 그들이 그의 성격을 오해하는 경우이다.²⁶⁾ 그런데 글라우콘이 말하듯 법의 지시가 정의라면, 정의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의관을 가질 수도 없고, 악행을 하지 않은데서 정의가 성립하기에 행위하지 않은 사람의 성격을 오해할 수도 없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든 가장 불의한 사람이든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글라우콘의 세 번째 도전 또한 두 번째 도전과 마찬가지로 사고 실험이다.²⁷⁾ 가장 불의한 사람은 욕구 충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정의의 평판과 불의를 함께 택하겠지만, 글라우콘의 주장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불의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제약을 극복해야 하기에, 가장 불의한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불의한 사람이 되고자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연 상태보다는 정의로운 질서 하에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이유가 없다.²⁸⁾

25) Santas (2010), 50.

26) Williams (1997), 60, 각주 6.

27) Shields (2006), 79; Santas (2010), 51.

28) Santas (2010), 50. 산타스는 무임승차하는 소수가 정의로운 공동체의 안

글라우콘의 주장은 가장 불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옳은가?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면, 누구나 불의한 행위를 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고 주장했을 뿐 이를 밝히지는 않았다. 인간에게는 욕구 충족과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반성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²⁹⁾ 인간이 욕구 충족과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욕구 충족이 인간의 유일한 행위 동기는 아닐 것이며, 이 때 인간은 욕구 충족을 통해서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글라우콘의 세 번째 도전에는 문제가 있다.

앞서 357a에서 글라우콘은 정의가 불의보다 모든 점에서 더 좋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소크라테스에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세 종류의 좋음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질문했다. 이 질문은 정의가 불의보다 모든 점에서 더 좋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연속선상에서 제기된 질문이었다. 그런데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도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인지를 밝히는 데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앞서의 요구는 잊혀졌다.³⁰⁾ 정의가 이러한 좋은 것이라고 밝혀져야 하지만, 이에 앞서 정의가 불의보다 모든 점에서 더 좋다는 것도 밝혀져야 한다. 만약 정의가 불의보다 모든 점에서 더 좋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는 불의보다 선호될 것이고, 정의는 불의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정의롭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는 행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한다.³¹⁾ 정의가 정말로 행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의가 불의보다 더 좋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정의가 불의보다 더 좋다고 밝혀지면, 정

전과 자연 상태의 자유, 권력을 지니고, 강자들은 합의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은 글라우콘의 계약론적인 정의를 비판한다고 주장한다. 글라우콘이 제시하는 정의에는 분배, 사회적인 협동의 공동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최소 수준의 정의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Santas (2010), 50~51.

29) Shields (2006), 78~79.

30) Irwin (2000), 656~657.

31) Irwin (2000), 657~658.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불의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면, 글라우콘의 주장은 틀린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옳을 것이다.

VI. 나가며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발전시켜서 세 차례의 도전을 통해 정의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정의는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자들의 약정에서 기원하는데, 불의를 행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최선과 불의를 당하고서도 보복을 할 수 없는 최악 사이에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은 탐욕 때문에 불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처벌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정의를 행한다. 셋째, 가장 불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평판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의 도전에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도전에서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은 민주정 일부를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도전에서 그는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고 전제할 뿐 이를 입증하지 않으며, 처벌 회피에 논의를 집중하면서 정의로운 질서의 유지를 간과하고,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도전에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라우콘이 말하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 또는 가장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자연 상태보다는 정의로운 질서 하에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글라우콘의 주장은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임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글라우콘이 주장하듯 인간이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면,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권력, 자유, 안전, 부, 쾌락 등을 갖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인간에게 좋은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는가?³²⁾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면

이에 만족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무한히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무한히 갖기는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는 사람조차도 불행할 것이다. 물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외에 다른 것, 무엇보다도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가 항상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행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한다.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무한한 욕구 충족을 원할 이유가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하면 만족한다. 이는 욕구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성이 지배하면, 인간은 정의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무한한 욕구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지배에 있다. 이성이 욕구를 통제해서 영혼의 조화를 가져오면 인간은 정의롭고 행복해진다. 그런 사람은 기게스의 반지를 끼고 있어도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정의는 정당한 행위나 행위 규칙의 준수에 있지 않고, 영혼의 구조와 기능에 달려 있다.³²⁾ 글라우콘이 말하는 정의의 기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의는 인간 영혼의 상태에 근거해서 성립한다.³⁴⁾ 글라우콘은 정의가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있다는데 주목하여, 정의가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의는 행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에 달려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정의는 결과 때문에도 그 자체 때문에도 좋은 것이다.

인간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정의를 추구해서 행복해져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연 상태에서 강자가 되어 불의를 행하는 것, 기게스의 반지를 꺼서 불의를 행하는 것, 가장 불의한 사람이 되어 불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권력, 부 등의 외적인 좋음을 소유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무한한 욕구

32) Santas (2010), 53.

33) Reeve (2008), 72; Santas (2010), 52.

34) 김영균 (2005), 281~284.

충족을 원하기에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영혼은 조화로운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성이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 이는 정의로운 사람에게 가능하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힘을 합쳐 더욱 굳건히 글라우콘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우콘의 도전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제시하되 정의를 행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이를 적극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투 고 일: 2012. 07. 02.
심사완료일: 2012. 07. 30.
게재확정일: 2012. 07. 31.

임성진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김영균,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기게스의 반지와 두 가지 삶의 방식』, 『인문과학논총』 30, 2005, 279-291.
- 플라톤, 박종현 역, 『국가』. 서광사, 1997.
- Annas, J.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Oxford, 1981.
- Cross, R.C. and Woosley, A.D., *Plato's Republic*, Macmillan, 1964.
- Heinaman, R., "Plato's Division of Goods in the *Republic*", *Phronesis* 47, 2002, 309-335.
- Irwin, T., *Plato's Moral Theory*. Oxford, 1977.
- _____, "Republic 2: questions about justice," in *Plato*, ed. Fine, G., pp.646-667. Oxford, 2000.
- Kirwan, C.A., "Glaucón's Challenge," *Phronesis* 10, 1965, 162-73.
- Reeve, C.D.C., *Philosopher-Kings: The Argument of Plato's Republic*. Princeton, 1988.
- _____, "Glaucón's Challenge and Thrasymacheanism,"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34, 2008, 69-103.
- Santas, G. *Understanding Plato's Republic*. Blackwell, 2010.
- Shields, C., "Plato's Challenge : the Case against Justice in *Republic* II," in *The Blackwell Guide to Plato's Republic*, ed. Santas, G., pp.63-83. Oxford, 2006.
- Slings, S. R., *Platonis Rempublicam*. Oxford, 2003.
- Weiss, R., "Wise Guys and Smart Alecks in *Republic* 1 and 2,"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lato's Republic*, ed. Ferrari, G.R.F., pp.90-115. Cambridge, 2007.
- White, N.P.,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Plato's *Republic*,"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2, 1984, 393-421.
- Williams, B., "Plato against the Immoralist," in *Platon; Politeia*, ed. Höffe O., pp.55-67. Akademie Verlag, 1997.

ABSTRACT

Glaucou's Challenge

Lim, Sung-Jin

In Plato's *Republic* II, Glaucon develops Thrasymachus' arguments, challenges Socrates three times, and insists that justice is good because of its consequences. 1) Justice originates from the weak's agreement with each other neither to inflict injustice nor to suffer from it; it is in between the best(to inflict injustice without paying the penalty) and the worst(to suffer from it without being able to get revenge). 2) All people wish to inflict injustice because of pleonexia, but involuntarily inflict justice because of punishment. 3) The unjust person should have a reputation of being just in order to live most happily. But Glaucon's challenges have some problems. 1) It is not possible for his origin of justice to come into being except in some democracies. 2) He presupposes that human beings want to satisfy their own wants infinitely, but does not prove this, and he overlooks the maintenance of just order while focusing the discussion on the avoidance of punishment, and by using two wrong assumptions, insists that justice is good because of its consequences. 3) Actually, most people cannot be the most just or an unjust man, and will not inflict injustice because it is better to live under just order rather than under the state of nature. Nevertheless, his challenges have great significance because they strongly indicate the reason to inflict injustice and require the necessity to enact justice positively.

Keywords: Glaucon, justice, goodness, origin of justice, ring of Gyges, choice of life